

◆ 말씀 /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

이사야 40장 9~11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살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이런 저런 낭패를 당해 낙심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안 되고 절망스러운 현실만 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항상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추석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주저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당장의 낭패에 절망하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한걸음씩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 팔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0년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론 어렵고, 때로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더 성숙하고, 자라가고, 건강하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송 / 찬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 다함께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 대표기도 / 담당자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이사야 40장 9~11절

-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 말씀 /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 인도자 (뒷면 참조)

◆ 찬송 /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다함께

-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